

익산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지정 추진

노을·바람·물·예술 등 테마 입혀
관광 활성화·관광객 편익 증진
도내 최초 지방·국가정원 도전



익산시가 금강변에 위치한 용안생태습지에 '빛과 노을의 정원' 등 다양한 색깔을 입힌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안생태습지 일대 정원 조성 계획도.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용안생태습지의 국가(지방)정원 지정을 위해 5가지 테마를 덧입힌다. 익산시는 용안생태습지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빛과 노을의 정원' 등 다양한 색깔을 입힌 정원으로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한다. 용안생태습지에는 아름다운 노을을 즐길 수 있는 '빛과 노을의 정원',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을 살펴볼 수 있는 '바람의 습지정원' '물과 생명의 정원', 지역 예술문화의 특징을 살린 '예술문화의 정원', 백제 문화가 숨 쉬는 '백제 역사정원' 등의 테마가 적용된다.

특히 용안생태습지의 생태환경 특징을 잘 나타내 줄 '바람의 습지정원'과 '빛과 노을의 정원'을 중점 테마로 정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5가지 테마 적용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 증진으로 도내 최초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은 산림정에서 순천시 순천만과 울산시 태화강 2곳을 지정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관리하고 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목원·정

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부지를 조성해 관리해야 한다.

이후 전북도의 지방정원 지정을 거쳐 최종 국가정원으로 승격·지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강변에 위치한 용안생태습지는 금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하천 정비공사 추진 후 기존의 갈대숲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바람개비 길을 만들고 화단을 조성해 올해 한국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산림청·전북도의 관련 부서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회, 시의회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용안생태습지가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폐차 상관없이 신차 구입 가능
대당 700만원...폐차 지원금 제외

학 용도로 신규 구입할 경우도 지원한다. 군은 지원 대상을 넓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한 어린이집, 대안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및 체육시설은 물론,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차량 소유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고창군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 이상 15인 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량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소형 승합(9인 이상 15인 이하) LPG차를 어린이 통

지원 금액은 차량 1대당 700만원이며,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한 차량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폐차한 차량이 없을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 차량 미보유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한다. 단 경유차 조기폐차 금액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고창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해 군청 생태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문화광장 자전거 길에 활짝핀 황금 달맞이꽃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부터 문화광장 자전거 도로를 잇는 길에 황금 달맞이꽃이 만개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정읍시는 내장호와 정읍천 주변 자전거 도로변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왕복 7km 구간에 꽃길을 조성했다. <정읍시 제공>

"백신 맞았어요, 안심하세요"...순창군 '코로나 안심배지' 효과

1만개 소진 5000개 추가 제작
심리적 안정감 주고 접종 유도

순창군이 만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나눠준 '안심배지'가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면서 주목 받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1만개를 제작해 백신접종자에게 배부한 안심배지가 소진돼 5000개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

또 주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보이며 백신접종 유도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어 전국의 지자체에서 순창군의 안심배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순창군의 안심배지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순창군보건의료원 직원들부터 달기 시작해 백신접종에 주민들의 신뢰를 더했다.

백신접종 주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안심배지 자체가 주민들 간의 만남에 안전을 확인해주는 아이템으로 각광 받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안심배지 착용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간 구별이 가능해지면서 상대방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백신 접종을 유도



황숙주 순창군수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에게 군에서 제작한 안심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하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타 시도보다 빠르게 백신접종을 마쳐 집단면역 형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에서는 1차 백신접종자가 8969명을 넘어

가면서 18세 이상 주민 대비 36%이상의 접종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타지역 보다 접종률이 높은데도 안심배지가 상당한 구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정읍시 저소득 학생 57명에 책상세트 선물

정읍시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칫 학습환경까지 제약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책상과 의자, 책꽂이 등을 선물했다.

정읍시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 57명에게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책상세트를 지원했다.

이번 '꿈키움 책상세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의 학습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서 정읍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2000만원의 인센티브에서 1700만원이 활용됐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웃사랑의 저력을 보여준 정읍시민의 마음이 모여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해 가정 학습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새 책상에서 공부하며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태양광발전소 선·각·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